

- Cho Sang'u, "Ch'oi Kounjŏn-e p'yoch'ul-toen 'tae Chunghwa ūisik-ŭi hyŏngsŏng paegyŏng-gwa ūimi", *Minjok munhaksa yŏn'gu* n.25, Minjok munhak sahak'oe, 2004.

- Cho Sang'u, Chŏn Kwansanjŏn yŏn'gu, MA thesis Dankook University, 1995.

- Chin Tonghyŏk, "Chŏn Kwansanjŏn haeje", in *Ōmun nonjip* n.27, Korea University Kug'ŏ kungmunhak yŏn'guhoe, 1987.

- Ch'oi Chinyŏ, *Yŏsŏng yŏng'ung sosŏr-ŭi sŏsa-wa inyŏm yŏn'gu*, PhD thesis SNU, 2015.

## 발제 2

# 역사와문학: 중국의 기이한 이야기들의 기원과 발전

도나텔라 구이다  
나폴리대학교 동양학대학 중국학과

## 서론

중국 전승에는 신비하고 기적적이며 놀라운 사건들을 다룬 설화가 무수히 많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초자연적인<sup>1)</sup> 존재와 마주치기도 하는데, 이 존재들은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인간의 모습 아래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또한 보통의 동물이나 신화 속 동물<sup>2)</sup>도 자주 등장해서는, 다른 존재로 변신하거나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 자신과 마주친 온 나쁜 인간을 속이거나 골탕먹인다. 만약 인간이 기본 덕목과 예의를 지킨 경우라면 이들 존재가 좋은 일을 해주거나, 심지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수도 있었다. 실제로도 이 존재들은 인간세상과 귀신의 세상을 잇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며, 민간신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司馬遷(B.C. 145-86)도 그의 대작 사기史記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는 먼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보다 한 세기 전의 인물로서 한나라를 창건한 유방劉邦(B.C. 247?-195)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탄생에 얽힌 신비함을 언급한 것이다<sup>3)</sup>. 일반적으로 이런 사료 상에서의 언급은

1) 이 용어는 중국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귀신들 또한 동일한 자연질서의 일부이지만 인간이나 동물과는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2) 가장 자주 나오는 동물은, 실제 동물로는, 여우, 호랑이, 늑대, 파충류, 새, 심지어는 벌레도 있고, 환상 속 동물로는 용, 일각수, 봉황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Roel Sterckx (2002) *The Animal and the Daemon in Early China*. Albany: SUNY Press.

3) 사기 8: 341

정치적 의미도 갖는다. 곁에 있는 영의 존재는 군주에게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들이 지닌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준다.

바로 이런 시각 아래서 『한무고사漢武故事』라는 초자연적 특색을 지닌 짧은 작품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저자 반고班固(32-92)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양식은 육조, 그 중에서도 동진東晉(317-420) 시대부터 지괴志怪라는 용어의 발생과 함께 보다 명확한 특색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괴이하거나 신비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지괴’라는 용어는 『장자莊子』의 첫 장에 나오는 한 구절<sup>4)</sup>에 유래를 두는데, 그 구절은 기이한 생물들과 변신하는 존재들에 대해 묘사하는 또 다른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이 도가의 책이 이 기록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기존의 출처를 언급하는 것처럼, 지괴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사료의 구조로부터 왔다. 즉, 시기와 장소, 심지어는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는 등 명확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신비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조의 정사 내에 포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이미 한서漢書(1C)에 신비하고 비정상적인 사건만을 다루는 志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다른 13개 정사에도 등장한다<sup>5)</sup>. 이에 대한 설명은 중국 사료들이 본질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성은 그것이 본보기로서 지닌 도덕적 가치보다 하위에 있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견상으로는 상상에 지나지 않거나 범상하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었다<sup>6)</sup>. 그런데 이를 기술한 이들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 생각했을까?

여러 학자들이 이 진실성이라는 문제를 연구했는데, 예를 들어 20세기의 문호 루선Lu Xun은 자신의 저작인 중국문학사에서, 이러한 이야기의 저자들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설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sup>7)</sup>. 반면 Kenneth DeWoskin과 Carl S. Y. Kao는 바로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을 소설의 최초 사례로 보고 있다<sup>8)</sup>. 실제로 중국 전통에서는 역사가 문학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와 문학 간에 아무런 구분이나 구별이 없었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지괴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시선을 통해 역사와 문학, 진실과 허구 사이의 모호한 가치를 유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주는, 왕조사와 다른

사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요소였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괴이한 이야기들에 일반적인 역사와 동일한 도덕적 기준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지괴를 기록하는 역사가 자신도 서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해당 기록에 오류나 불확실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史와 관련해서는, 주나라 시대로부터 궁중의 천문역학자들과 사관들이 인간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해석을 위해 천문현상들도 기록할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왕조사 내에도 등장할 만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용이나 다른 환상 속 생물들의 출현과 관련된 사례들도 포함되었다. 실제로도 지괴는, 만약 자신의 의무에 부주의하거나 그에 맞지 않게 행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경고이거나, 반대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귀신들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교훈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 더하여 이런 이야기들은 가족과 국가,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부각시켰는데, 그 내용은 저자의 관심도에 따라 달랐지만 저자는 절대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달지 않았다.

“스승께서는 괴력난신(괴이한 사건, 힘의 사용, 질서문란, 귀신)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sup>9)</sup>”라는 유명한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자는 이런 현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는 이러한 형식의 이야기가 명나라 시대가 될 때까지도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틀림없는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런 이야기의 운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어서, 괴이한 이야기들은 청나라 제국 말기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는 청나라 시대의 대작인 두 문집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 바로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誌異(요 서재의 신비한 이야기)(1766년 출간), 원매袁枚가 쓴 자불어子不語(스승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1788)가 그것이며, 후자의 제목은 바로 공자의 문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런 문집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대를 나타내는 요소들과 정확한 장소, 연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당나라 시대(618-907)에 탄생하였고 창작물로서의 특색을 분명하게 지닌 또 다른 기록물인 전기傳奇로부터 영향을 받아,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발전한 후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간보와 수신기(귀신을 찾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작품 중 기괴한 이야기만을 다룬 최초의 저작은 바로 간보干寶(?-336, 자는 영승令升)가 335년에서 349년 사이에 지은 수신기搜神記로서, 20권의 책에 464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간보는 고전인 역경易經을 연구하던 학자로서 유명한 주해서를 저술했으나 오늘날에는

9) 논어Lunyu, 7:21.

4) 《莊子·逍遙游》：“齊諧者·志怪者也。” 1:1.

5) 주요 정사에서 우주론과 오행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행지五行志에서 주로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일들을 다루는데, 이 志는 삼국지三國志와 수서隋書에만 없다. 송서宋書 이후로는 상서로운 조짐들에 이야기하는 志도 등장한다(부서지符瑞志).

6) 역사와 문학 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루Lu (1994)의 저작에서 볼 수 있다; Ong과 Wang (2005)은 고대로부터 제국말기에 이르는 사료의 변천과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7) 22장

8) Kenneth DeWoskin, 1983:32.; Carl S.Y. Kao, 1985: 2.

일부만이 남아있다. 그는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맡았던 관리였으므로 사료를 편찬하는 일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황실 문헌고에 들어가 거기 수집된 모든 문헌에도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보수는 그리 높지 않았는지 심지어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산음山陰(현재의 저장성 샤오싱)의 관리로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후 지방관으로 승진하여 사안史安(현재의 광시, 구이린)으로 발령받는다. 진서晉書에 포함된 그의 전기에는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간보가 자신의 가족까지도 연루된 신비한 사건들을 포함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 있기 때문이다.

“간보는] 천성적으로 음양술수<sup>10)</sup>를 좋아했다 [...] 그의 아버지에게는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고 어머니는 이를 너무나 투기하여 남편의 무덤에 자녀를 산재로 묻어버린다. 당시 간보와 그 형제들은 매우 어렸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어머니 또한 돌아가신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도 함께 장사지내기 위해 아버지의] 무덤을 열었더니 관 위에 자녀가 드러누워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를 집으로 다시 옮겨오고 며칠이 지나자 이전처럼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자주 주었고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애정으로 돌봐주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녀에게 가족의 일들도 알려주었는데, 그 말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또 땅 아래 있던 것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후 혼인을 해서 아들을 하나 보았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간보의 만형이 심한 병에 걸린 나머지 신체가 생의 기능을 다 잃었는데 며칠 후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후 그는 다시 깨어나 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본 신령과 귀신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것이 마치 꿈 같아 보였고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 간보는 신령과 귀신, 변신하는 존재들과 관련하여 자료를 모으고 고대와 현대의 사건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30권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에 수신기라고 이름을 붙였다<sup>11)</sup>. 그가 이것을 유담<sup>12)</sup>에게 보이자, “자네를

혼령들의 동호<sup>13)</sup>라 칭할 수 있겠구먼”이라고 감탄했다.<sup>14)</sup>

위와 같은 내용의 전기는, 간보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문장가들이 수신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명제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사실상, 간보의 작품이 유명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왕조사를 기술하는 이들이 간보 주변을 떠도는 이야기들을 단순히 인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전기들은 매우 기괴하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민간에서 믿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지만, 그대신 작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주는 것이 없다. K. DeWoskin와 J. Crump에 의해 영역(1996)된 해당 작품은, 등장하는 이야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흥미로운데, 이에 대해 작가 자신이 실제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실제 증인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기록과 역사사료 간의 연결성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문학과 상상 문학 간의 이러한 관계는 수신기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자는 황제 Song Shizong의 모후가 기이하게 변신해버린 이야기를 황실의 역사를 기술하듯 엄숙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모후가 혼자 하는 목욕이 너무 길어지자 염려한 시종들과 황실 가족이 문을 부수고 실내로 들어가는데, 옥조 안에는 머리에 모후가 쓰던 머리꽃이를 달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만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는 가운데 거북은 강 속으로 도망치고 때때로 궁전 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된다.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천자는 어머니가 ‘모습은 바뀌었지만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여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상례 치르는 것을 거부하였다.<sup>15)</sup> 반대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형체가 변할 수도 있었다. 이런 변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매우 많으며 뒤에서 살펴볼 여우 여인의 사례도 여기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안양 역참의 세 살인귀<sup>16)</sup>’는 젊은 선비가 저주가 내려진 역참에서 하룻밤을 묵는 이야기이다. 밤이 깊자 주인공의 곁에 세 명의 악한이 다가오는데, 이들이 사실은 암돼지, 수탉, 전갈이라는 사실이 뒤에서 밝혀진다. 인간의 모습을 입은 이 동물들은 그 외딴 곳에서 잠이 드는 재수없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양값을 한다. 이 이야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예와 같은 궁궐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적인 역사를 기술하듯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

역사기록과 초자연적 이야기 간의 관계는 중국문학 전통 안에 존재하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우리의 것과 이국의 것, 실제와 환상 사이의 미세하고 흐릿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일부 기이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의 텍스트

10) 음양술수陰陽術數: 번역하기 어려운 이 용어는 음과 양의 관계, 즉 온 우주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기이한 사건들이 우주의 균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하지만 가장 신뢰할만한 판본은 20권으로 되어 있다.

12) 劉澗 진나라 관리, 도가 학자이며 천문역학에 매료되어 있었다. 진서晉書에는 그의 전기도 포함되어 있다.

13) 董狐춘추시대의 유명한 사관

14) 진서晉書 82: 2149-2150.

15) 수신기: 14:356 (168).

16) 수신기: 18:438 (227-228).

안에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 간보의 수신기에서 다시 한 번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진나라 시대(B.C. 3C), 남쪽에는 낙두落頭족이라고 불리는 종족이 살았는데 이들의 머리는 날아다닐 수 있었다. [...] 주환 장군이 이 종족의 한 여인을 사로잡아 자신의 집에서 하녀로 삼았다. 그런데 그녀가 잠이 들면 그 머리가 갑자기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귀는 마치 날개처럼 공중에서 균형을 잡았고 새벽이 되어야만 제자리로 돌아왔다. 장군의 주변사람들은 이를 매우 괴이하게 여겨서 어느 날 밤 등불을 들고 와서 그녀를 살펴본다. 그 자리에는 여인의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는 없었고 몸에는 살짝 냉기가 돌았으며 숨은 겨우겨우 쉬고 있었다. 몸통을 이불로 완전히 덮어버리자 새벽에 머리가 돌아왔다가 이불로 인해 다가가지 못했다. 2-3번 정도 이불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바닥에 떨어진다. [...] 여인의 숨이 점점 더 거칠어져 꼭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 비로소 남자들이 이불을 거두었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잠시 후 호흡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주환 장군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그런 여인이 제 집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 제 종족에게로 다시 돌려보낸다. 조사 끝에 그것이 정말 낙두족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당시 운난으로 파견나가 있던 장군들이 자주 이 종족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두 부분을 분리시켜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7)</sup>

명나라 시대의 삼보태감 정화와 함께 그의 해상 원정에도 몇 번 참여하며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인디아, 아프리카까지도 갔었던 한 회교도 역관의 기행문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참파, 베트남 남부] 시두만尸頭蠻이라고 불리는 야만인은 사실,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다. 다만 이 여인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으니 눈에 눈동자가 없다. 밤이 되어 잠이 들면 머리가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배설물을 먹는데, 이 아이들은 그 뱃속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간 악귀에 잠식당해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다. 새벽이 되면 날아다니던 머리는 다시 돌아와 전과 같이 몸에 합쳐진다. 이를 아는 사람이 머리가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몸통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으면, [머리가] 돌아와서 불을 몸을 찾지 못하고, [여인은] 죽는다. 만약 이 여인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살인자인 여인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

17) 수신기, 12:306 (147)

당한다. (마환馬歡, 영애승람瀛涯勝覽, 1433)

두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시대, 지리적 위치,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상황(이것은 공식적인 해상 기행문이다),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무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다만 진나라에서 명나라 시대로 넘어가는 동안 남쪽은 국경 너머 남쪽으로 훨씬 멀어졌는데, 그것은 그 사이 운남이 제국의 일부로 통합되어 명나라 시대에는 이미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두 경우에서 모두 신비한 존재는 여인이다. 이것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위험성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우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구미호 九尾狐

동물들이 기이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서양 문학에서 항상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맡아왔던 여우는, 중국 소설 속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구미호는 고전인 산해경山海經(저술 시기는 B.C. 5세기에서 A.D. 2세기 사이로 불분명함)의 남쪽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원래 일반적인 동물이었다가 백 살이 되면 두 번째 꼬리가 나오고 이후로도 백 년마다 꼬리가 하나씩 더 솟아나고 마침내 꼬리수가 9개가 되고 10개의 사람 심장을 꺼내먹은 다음이면, 인간의 형태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된 여우는 애교어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데, 만약 거꾸로 여우가 사람에게 잡혀먹게 되면, 여우 고기를 먹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sup>18)</sup>

원래 남쪽의 어딘지 알 수 없는 먼 장소에 살고 있던 여우는, 이제 여러 세기가 지난 후 수신기에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 즉 비유적으로는 독자와 가까운 곳에서 출몰하게 된다. 버려진 시체에서 생기를 얻어서는 변신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한다. 여우는 저승과 이승, 인간의 세상과 귀신의 세상, 선과 악, 남성과 여성의 중간에 있는 존재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여우의 영리함은 지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8) “青丘之山·有獸焉·其狀如狐而九尾·其音如嬰兒·能食人·食者不盡·” *Shanhai Jing, Nanhai jing.*

### 여우와 무덤기둥(화표華表)

장화는 진나라 시대에 사공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그가 벼슬에 있을 때 한 늙은 여우가 옛 연나라 왕인 조 Zhao의 무덤 앞에 동지를 짓고 살고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여우는 다양하게 변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루는 젊은 선비로 변신을 하고 장화를 만나러 가다가 조 왕의 무덤에 있는 화표목 앞을 지나게 된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장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나?” 화표목은 이렇게 대답한다. “네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장화의 지식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를 만나러 갔다가 네가 어떤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천 년이나 산 너의 생명은 물론 이 오래된 화표목도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우는 그래도 장화를 만나러 간다. 장화는 여우의 기품있는 외모, 진주와도 같은 하얀 피부에 강한 인상을 받아 그를 크게 대접하며 문학에 대해 논하고 명칭과 본질 간의 차이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장화는 새로운 것을 많이 깨우친다. 또 노자와 장자의 숨겨진 의미를 포함하여 철학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 그 어떤 주제에 대해 논하더라도 장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우스운 꼴을 당하며, 여우의 주장에 응수하지 못한다. “이런 청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장화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여우나 귀신이 틀림없다.” 장화는 여우에게 머물러 줄 것을 청해놓고는 그 옆에 감시자를 세워놓는다. “재능은 존중하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하며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는 친절해야 합니다. 많은 재주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왜 차욕스러워 하십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하고 보내주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 장화는 진실을 밝히려던 천 년 된 나무로 햇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청년을 비추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화표목을 베어 햇불을 만들어 술수를 밝혀낸 후 여우를 산 채로 태워버리게 한다.<sup>19)</sup>

인간의 철학과 문학에 관한 지식이 도술에 대한 지식과 결합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노인과 상관을 비웃고, 규칙을 파괴하는 오만한 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다. 때로 여우들은 ‘산스크리트어와 유사한’<sup>20)</sup>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로 쓰인 도술 서적들을 갖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인간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책을 빼앗으려 한다. 외국어, 특히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언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과 불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교 전통은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도술 및 비정통적 관습과 동일시했다.

19) 수신기, 18: 421 (216-218)

20) Rania Huntington 2003:13

당나라 시대부터는 크게 확장된 제국 내에 많은 타민족과 외국인 공동체가 유입되며, 그와 동시에 여우를 의미하는 狐狐와 외국인이나 오랑캐를 의미하는 胡胡가 통한다는 암시가 강조된다. 또한 여우는 더 이상 외진 곳이나 들만에 사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점점 더 도시나 도시 근교의 배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즉, 인간 공동체 안에 침투해 있다는 생각과 변신이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심기제沈既濟(741-805경)의 임씨전任氏傳에 나오는 임씨 여인의 유명한 이야기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데, 이는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괴물’의 인간화를 표상하기도 한다.<sup>21)</sup> 기존의 기록에서 가져왔다는 이 사건은, 돈 한 푼 없는 청년이 우연히 아름다운 이국의 여인을 만나 즉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다. 그 처녀 역시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지혜롭고 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랑하는 남자를 도와준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은 여우 신령이기 때문에 중국 여인이라면 빼 놓을 수 없는 바느질을 할 줄 몰라 그것으로 인해 진짜 정체가 탄로난다. 결말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개떼에게 공격 당하는 바람에 자신의 원래 모습인 여우로 돌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한 편으로는 긍정적이다. 비록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피어내었지만 젊은이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비극적이다. 자신에게 내재된 본성, 이 경우에는 동물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나라 시대에 상인, 무신(안녹산을 생각해보라), 승려 계층을 통해 사회 속에 편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자 한족의 우월적 지위가 지나는 특권과 정체성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여우에게 길이 열리는데, 그 여우는 자신의 능력을 인간을 위해 쓰고 모든 방면에서 인간을 도와주려 노력한다.

### 결론

“사람과 짐승들은 서로 다른 종에 속하지만, 여우는 사람과 동물의중간에 있다. 산자와 사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여우는 산자와 사자들의 중간에 있다. 불멸의 존재와 괴물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지만, 여우는 불멸의 존재와 괴물의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우를 만나는 것은 기이한 일이지만, 또 평범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운, 18C)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일상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들에 대해 고찰하게 하며, 인간과 귀신들이 동일한 자연 속에서 혼재되어 살고 있고 동일한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21)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긴데 번역자는 다음과 같다. Minford 와 S. M. Lau 2000: 1024-1031. 이 이야기는 태평광기에서도 인용된다, 452.



것을 보여준다. 또 한 편에서는 독자들에게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 것이며 사회 규약이 정하는 바를 정확히 지키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또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도록 틈을 벌려 놓는다. 개인과 집단의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곳, 이국과 맞닿은 곳에서 형태를 찾는다. 즉, 모든 것이 이상하고 낯설며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것을 대표한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야수성, 매력과 공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한 편으로는 성적 유혹과 다른 한 편에서는 유교적 검열에 사이에 불안하게 위치한 여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의 이런 이중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지피의 전통을 제국 말기까지 실어 나른 포송령의 문집에 포함된 이야기 중 하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채색된 인피라는 뜻의 ‘화피畫皮’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선비의 파멸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그 여인은 사실 무시무시한 악귀에 다름 아니며 탐욕과 호색의 화신으로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뛰어난 묘사로 그려놓은 인피를 입고 있다. 주인공은 괴물의 손쉬운 희생자이며, 중국에는 아내에 의해 목숨을 구한다. 그의 아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마저도 위험에 내 놓은 채 현명한 도사의 지시를 따른다. 신실함과 끈기는 호색과 과도한 열정에 승리한다. 이렇듯 이 이야기는 탐욕이라는 뱀,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분별력(성리학 윤리의 기둥)에 혼란이 왔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사랑의 꿈을 좇느라 행체를 바꾸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로 채색되어 있는 포송령의 이야기들은, 그가 당시의 전통 관습과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는 독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에서 변신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저자가 마지막에 추가한 문장 속에 축약되어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틀림없는 요괴를 미인으로 보다니!”<sup>22)</sup>

22) 愚哉世人! 明明妖也而以美。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극동 아시아 전반에서 큰 성공을 누렸다. 이 이야기를 변형하여 영화로 만든 예가 무척 많으며 가장 최근의 예는 2012년이다.

## 참고문헌

- Company, Robert Ford. “Two Religious Thinkers of the Early Easter Jin: Gan Bao and Ge Hong in Multiple Contexts.” *Asia Major*, Third Series, 18.1 (2005): 175 – 224.
- Chan, Leo Tak-hung, (1998) *The Discourse on Foxes and Ghosts: Ji Yun and Eighteenth-century Literati Storytelling*,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Woskin, Kenneth (1977) “The Six Dynasties Chih-guai and the Birth of Fiction.” *Chinese Narrative: Critical and Theoretical Essays*, ed. Andrew H. Plaks. Princeton: Princeton U. Press.
- DeWoskin, Kenneth (1983) “On Narrative Revolutions” in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5:
- DeWoskin, Kenneth and J.I. Crump Jr (trs.) 1996 *In search of the supernatural : The written record*,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Rania, (2003) *Alien Kind: Foxes and Late Imperial Chinese Narrative*,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 Jin Shu晉書, Beijing, Zhonghua shuju, 1974.
- Kao, Carl S. Y. , “Aspects of Derivation in Chinese Narrative”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7 (1985)
- Kao, Carl S. Y. *Classical Chinese Tales of the Supernatural and the Fantastic: Selections from the Third to the Tenth Centu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Lu, Sheldon Hsiao-peng (1994), *From Historicity to Fictionality. The Chinese Poetics of Narra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nford, John e Joseph S. M. Lau (a cura di),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 Anthology of Trans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srity pres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00.
- On-cho Ng and Q. Edward Wang (2005), *Mirroring the past. The Writing and Use of History in Imperial China*,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 Pu Songling, (1916). *Strange Stories from a Chinese Studio* (transl. by Herbert Giles, 3<sup>rd</sup> edition). London: T. De La Rue.
- Sima Qian 司馬遷, *Shiji*史記, Beijing Zhonghua shuju, 1975.

- Sterckx, Roel, (2002). *The Animal and the Daemon in Early China*. Albany: SUNY Press.
- Xiaofei Kang, "The Fox (Hu 狐) and the Barbarian (Hu 胡): Unraveling Representations of the Other in Late Tang Tales", in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7 (1999): 35–67.
- Yi Chaole, 弋朝乐, 2016 "Lun Shi zhuan dui Soushen ji de yingxiang 论史传对《搜神记》的影响", *Shanxi xueqian shifan xeyuan xuebao* 陕西学前师范学院学报, 32.12:96–101.
- Zeitlin, Judith T. (1997). *Historian of the Strange: Pu Songling and the Chinese Classical Tal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 Zhang Qingmin 張慶民, "Gan Bao shengping shiji xinkao 干寶生平事迹新考" *Wenxue yichan* (2009): 5: 72–81.